

여성의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와 성격 간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정 경 숙

삼육보건대학 피부미용과

본 연구는 여성의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가 5요인 성격이나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참여자는 308명의 여대생이었고, 그들의 연령분포는 18세에서 29세($M=20.37$, $SD=2.02$)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15문항의 헤어미용태도 척도, 대오탐지척도, 및 한국판 BAS/BIS 척도이다. 대상자가 조사 당시에 연출하고 있던 헤어스타일로 분석한 결과, 짧은 머리의 여대생이 긴 머리의 여대생보다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고, 염색머리를 한 여성이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이나 개방성이 강했지만, 전체적으로 헤어스타일은 성격과 별로 상관이 없었다. 한편, 개방성과 순응성에서는 웨이브 머리와 염색머리의 이원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는 성격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5요인 성격요인 중에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이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있었으며, BAS/BIS는 헤어만족을 제외한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의 많은 하위변인들과 상관이 있었다. 비록 설명력이 10% 미만이었지만, 몇몇의 성격 요인들로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의 하위변인들을 유의하게 예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특히 기질적 성격차원이 헤어미용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연구들을 위해 연구결과들은 선행연구와 이론들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헤어스타일, 헤어미용, 성격, 행동활성화, 행동억제

[†] 교신저자 : 서경현,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Tel : 02-3399-1676, E-mail : khsuh@syu.ac.kr

헤어스타일이 인간의 외모적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라는 것만 보아도 (곽형심, 이임숙, 1999), 헤어스타일이 개인의 미(美)를 부각시키고 외모적 단점을 가릴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헤어 혹은 모발을 건강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김기향, 김기연, 1999). 헤어미용이 인간의 아름다움의 추구이기 때문에 그 유래는 인간 생존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으며(정경숙, 1999), 그것에는 여성 심리의 미묘한 부분까지 표현되어 있을 수 있다.

여성의 미 추구 행동 그 저변에는 개인의 심리적 기대가 있다. 그런 심리적 기대는 최수경과 강경자(2007)의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는데, 여성의 화장에는 자신의 이미지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적극적 상승 요인과 기분전환, 자신감 증대 및 긴장 해소 등 개인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심리적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용은 타인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을 넘어 의미 있는 타인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자 하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다(박은아, 2003). 따라서 여성이 자신을 외모적으로 잘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사회적 관계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작용은 크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행동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여성의 심리적 차원에서 개인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사람의 첫인상이 한 개인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체적인 매력에는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성품 등에 대한 후광효과(halo effect)가 있다(Zebrowitz, 2004). 그런 후광효과는 개인의 특성 중에 사회성이

나 능력에 집중된다고 한다. 그런데, 외모 중에 얼굴이 가장 강력한 후광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ebrowitz, Andreoletti, Collins, Lee, & Blumenthal, 1998). 헤어스타일이 첫 인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그런 사실은 한 실험(LaFrance, 2001)에서도 검증되었다.

LaFrance(2001)는 헤어스타일과 성격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보통 수준의 얼굴 외모를 가진 여러 사람들에게 네 가지 헤어스타일을 적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이 그들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실험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배우 맥 라이언(Meg Ryan)이 자주 연출했던 짧고 헝클어진 머리의 여성들이 가장 자신감 있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보았으며,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Christina Aguilera)처럼 길고 곧은 금발의 경우 섹시하고 거침없는 성격의 사람으로 보았다. 반면에 배우 산드라 블록(Sandra Bullock)이 자주 연출했던 중간정도의 길이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 헤어스타일을 가진 여성은 지적이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았다. 이는 얼굴이나 체형에 따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있고(황희순, 2002), 특정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특정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거나 어떻게 헤어미용을 하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실험에서의 어떤 특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연출하고 있는 사람의 성격이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 이 실험에서는 타인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첫인상을 어떤 것인가를 검증한 것이다.

지금까지 헤어스타일과 성격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서윤경과 김주덕(2003)은 연구를 통하여 여성

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나 헤어컬러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선호하는 헤어스타일로는 세련된 스타일, 신뢰적인 스타일, 인상을 좋아보이게 하는 스타일, 보수적인 스타일, 액티브한 스타일 등 다분히 성격의 특성이 포함된 추상적 헤어스타일을 변인으로 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구분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대상자들을 유형(type)형 성격검사가 아닌 Eysenck 성격검사의 하위변인으로 강인성/정신병적 경향성 집단, 외내향성 집단, 정서성(신경증적 경향성) 집단, 허위성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선호하는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게다가 특정 헤어스타일이나 헤어컬러를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연출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로 연출된 헤어스타일과 성격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 연출된 헤어스타일, 즉 헤어 길이, 웨이브 및 염색 여부에 따라서 성격에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송미라, 이재란, 2003; 오지영 등, 2006)에서는 헤어스타일과 성격이 별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의 경우 상업적으로 헤어스타일과 성격이 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실증연구로 이 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다.

연출된 헤어스타일에도 개인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지만 헤어를 연출하려는 미용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개인의 성격과 더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가정하였다. 헤어미용은 아니지만 미를 추구하는 미용 행동과 여성의 성격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 연구(박선희, 2002)에서는 여성의 화장심리가 MBTI로 측정된 성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헤어미용 태도나 행동과 여성의 개인의 특성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연구들은 주로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였고(김봉인, 나지은, 1999; 서경현, 정경숙, 2004; 정경숙, 서경현, 2002; 정경숙, 서경현, 2003; Crose, 2002; Franzoi & Shields, 1984), 여성 내면의 포괄적인 심리적 개인차를 나타내는 성격과의 관계는 거의 탐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단순히 연출된 헤어스타일을 넘어 헤어미용 행동이나 태도와 개인의 성격 간의 관계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미 추구행동과 관련된 성격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격의 다섯 가지 큰 요인(Big 5요인)으로 다양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가장 잘 예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성격의 5요인 모형은 외향성(extraversion),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혹은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순응성(agreeableness), 및 성실성(conscientiousness)으로 구성된다(Costa & McCrae, 1980). 이 다섯 가지 성격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격 5요인에서 외향성은 대인관계의 양과 질, 활동 수준, 자극에 대한 민감성 등으로 대변되기 때문에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헤어미용 행동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외향적인 사람은 적극적이며 사교적이라 말이 많고 낙천적이며 인간 지향적이다. 외향성의 반대 개념은 내향성인데, 내향적인 사람은 감정 표현이 적으며 침착하고 조용하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역으로 정서적 안정성을 대변한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강한 사람은 심리적 고통을 자주 호소하고 현실적 사고를 하지 못하며 부적응적 대처를 하여 욕구충족의 좌절을 경험하고 과도한 갈망을 보이는 등 정서적 안정성의 결여를 보인다. 여성의 미의 추구로

인해 받는 긍정적 피드백은 정서적인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개방성은 호기심, 상상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가치추구가 특징인데, 미의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더 개방적이라면 헤어미용에 더 적극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은 폐쇄적인 사람보다 더 생생하게 전반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이에 반해 폐쇄적인 사람은 관습적이며 독단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순응성은 원만한 대인관계로 대변되며 그 반대의 개념은 반항성이다. 순응적인 사람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로 여겨지며 관대하고 이타적이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반대로 순응성이 낮은 사람은 반항적으로 보이는데 타인에게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이며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순응적인 사람은 남에 눈에 띄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미를 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성실성은 목표지향적인 성격으로 대변된다.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주도면밀하며 야망이 크고 일을 조직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처리한다.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목표가 없고 게으르며 부주의하며 쾌락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McCrae, & Costa, 1991).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연구되어 온 5요인 성격을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려고 한다.

5요인 성격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성격이 있다. 그것은 성격의 생물학적 요소, 즉 기질적 차원이 강조된 성격이다. 일찍이 Eysenck(1967)은 인간에게 각성 수준을 관장하는 상행망상 활성화체계(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가 있어 그 기능의 차이로 개인의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미의 추구 행동에 대한 성격의 직접적 영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뇌 기능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중추신경계의 기능과 성격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들은 행동을 유발하는 체계와 그만 두게 하는 체계가 뇌에 존재한다는 쪽으로 이론이 수립되었다. 이런 두 체계를 행동활성화 체계(BA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와 행동억제 체계(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라고 한다(Fowles, 1980). 이 성격 체계는 행동을 활성화하고 억제하는 것에 관여하기 때문에 동기적 성향이 강하여, 본 연구자들은 이 성격 체계가 5요인 성격보다 미의 추구 행동을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그 설명력이 강하리라고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보상민감성과 재미추구 성향 등은 미의 추구에서 오는 긍정적 정서와 밀접하게 상관이 있을 수 있고(최수경, 강경자, 2007; Gray & McNaughton, 2000), 행동에 대한 추동이나 억제 기제는 미 추구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BAS는 원하는 것들과 관련된 단서에 민감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하며,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으라는 기대에서 생기는 희망, 흥분, 행복감, 희열 등을 유발하는 동기체계이다(김교현, 김원식, 2001). 이 체계는 도파민 경로와 관계가 있으며, 뇌의 좌반구 전전두엽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Wheeler, Davidson, & Tomarken, 1993). 행동활성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지향성이 강하고 보상의 단서에 어느 정도만 노출되어도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다시 말해, 행동활성화 체계가 민감한 사람들은 정적 유인가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BAS 수준이 높은 여성은 헤어미용과 같은 미 추구행동에 의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에 더 잘 강화될 것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BIS는 처벌과 위협 단서에 민감하여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심리적인 멈춤 작용을 한다(김교헌, 김원식, 2001). 이 체계는 불안 관련 단서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이나 계획했던 행동을 그만 두게 하거나 행동을 계획하지 않게 환경에서 다른 위협 단서들을 찾도록 유도하는 동기 체계인데, 뇌의 중격(septum)과 해마(hippocampus), 그리고 세로토닌 경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y, 1990). 또한, 슬픔,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정서는 뇌의 우반구 전전두엽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Wheeler et al., 1993). 행동억제 성향이 강한 여성은 장기적으로 미의 추구하고 관련해 부정 정서를 경험하면 헤어미용 행동들을 철회할 수도 있고, 부정적 자극에 예민해 행동억제 성향이 있는 여성이 부정적 피드백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의 추구 행동을 많이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들의 헤어미용에 관한 태도가 5요인 성격이나 내적이고 안정된 성격 특성인 행동활성화와 행동억제 성격 요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여 여성의 미 추구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헤어미용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이 맞으면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Kallgren & Wood, 1986), 태도와 행동은 성격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Ajzen, 2005), 헤어스타일과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가 여성의 성격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인데 반해 그것이 아직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한국에 수행된 일부 선행연구들(송미라, 이재란, 2003; 오지영 등, 2006)에서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기에 연출된 헤어스타일에 따라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헤어미용에 관한 태도와 성격 간의 관계를 탐색하려고 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308명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의 연령은 18세에서 29세($M=20.37$, $SD=2.02$)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대상자 중에 117명(38.0%)은 짧은 머리, 191명(62.0%)은 긴 머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94명(30.5%)이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96명(31.2%)이 염색머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설문지와 검사지에 응답하기 전에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이들에게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각 참여자들이 설문에 소비한 시간에는 약 20분이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5.0 for Windows에 의해 통계처리 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성격검사들과는 달리 헤어미용태도 척도는 널리 사용되어 온 척도가 아니고 체계적인 타당화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는 척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그 요인을 재확인해 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도구를 기술하며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계분석은 세 가지 헤어

스타일에 따른 삼원변량분석과 적률상관분석 및 동시투입 중다회귀분석이다.

조사 도구

헤어미용태도 척도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경현과 정경숙(2004)이 개발한 미용태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보다 내적일관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 중에 “미용실에 가면 내가 원하는 머리스타일을 자세히 설명한다.”를 “내가 원하는 머리스타일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미용실에 간다.”로 수정하였다. 서경현과 정경숙은 25문항을 요인분석 하여 총 15문항의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하였는데 15문항 중에 한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35 이하여서 제거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축요인 방법에 의해서 요인의 개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고유가(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방식과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aiser-Meyer-Olkin(KMO)값이 .641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가 $p < .05$ 로 나타나 자료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요인 수는 5개로 나타났으며(eigen values = 3.00, 2.00, 1.38, 1.24, 1.06), 이 다섯 요인이 전체 변량의 62%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21.44%, 14.27%, 9.84%, 8.86%, 7.57%). 다섯 가지 요인은 ‘헤어용품 선호(3 문항)’, ‘헤어연출 곤란(4 문항)’, ‘미용사 가림(3 문항)’, ‘미용실 가림(2 문항)’, ‘자신의 헤어상태 만족(2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헤어연출의 곤란은 만족할 만한 헤어스타일을 꾸미기 힘들고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해도 어울리지 않는 등 헤어미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하며, 헤어상태 만족은 헤어의 굵기나 술 등을 포함한 헤어의 상태가 관리하기 좋다고 느끼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미용사를 가리는 정도는 아무 미용사에게나 헤어관리를 맡기지 않고 실력을 인정받은 미용사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격에 상관없이 유명한 미용실을 찾는 것과 새로운 미용실에 가면 까다롭게 설명하는지가 미용실을 가리는 것과 상관이 있으며, 멋을 내기 위해서나 헤어의 건강을 위한 헤어용품을 많이 사용하는지가 헤어용품 선호도로 대변된다. 문항의 응답은 0-‘전혀 그렇지 않다’, 1-‘조금 그렇다’, 2-‘상당히 그렇다’, 3-‘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이 특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에서는 양호한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각 하위변인의 내적일관도 Cronbach's α 값은 .68~.94 수준이었다.

대오탐지척도(The Big Five Locator)

대상자들이 대오(Big 5) 성격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Howard 등(Howard, Medina, & Howard, 1996)이 개발한 대오탐지척도(The Big Five Locator)를 이주일(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성인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단히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약 2분 안에 측정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척도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형용사 쌍을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McCrae과 Costa(1991)의 Big 5 성격요인, 즉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순응성(동의를성), 성실성을 측정한다. 각 요인을 5문항씩으로 측정하고, 척도 개발에서는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1~.86 수

준이었다.

BAS/BIS 척도

참여자의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Carver와 White(1994)의 척도를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BAS/BIS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평정척도로 구성된 총 20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하위척도로는 보상민감성(reward responsiveness: 5문항), 추동(drive: 4문항), 재미추구(fun seeking: 4문항),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 7문항)가 있다. 행동억제체계(BIS)를 측정하는 하위척도는 하나이지만 행동활성화체계(BAS)는 세 가지의 하위척도로 측정하는데, '보상민감성' 하위척도는 보상에 대한 기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측정하고, '추동' 하위척도는 바라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강한 욕망과 지속성을 측정하며, '재미추구' 하위척도는 새로운 보상에 대한 열망과 잠재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 접근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김교헌과 김원식의 표준화 연구에서는 안정된 요인구조를 보였으며 비교적 높은 수렴 및 변별타당도와 예언타당도를 나타냈다. 하위척도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평균 .79 이상이었으며 내적일치도의 평균도 .78이었는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도 보상 민감성 .77, 추동 .74, 재미추구 .72, 행동억제 .79로 나타났다.

결 과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성격

연구자들은 현재의 헤어스타일에 개인의 성

격이 반영되었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헤어스타일에 따라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이 조사 당시 하고 있던 세 가지 헤어스타일에 따른 성격의 차이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한 개인이 가진 복합적 헤어스타일을 분석하고 헤어스타일 간의 상호작용까지 탐색하려고 하였다. 이에 2(헤어 길이: 짧은/긴) \times 2(헤어 웨이브: 웨이브/생) \times 2(헤어 염색: 염색/비염색) 삼원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5요인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대상자가 조사 당시 연출하고 있던 헤어 길이와 웨이브 여부에 따라서는 다섯 가지 성격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서적 안정성($F(1, 300)=7.71, p<.01$)과 외향성($F(1, 300)=4.46, p<.05$) 및 개방성($F(1, 300)=5.05, p<.05$)에 헤어 염색 여부의 유의한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헤어 염색한 여대생이 그렇지 않은 여대생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었고 외향적이었으며 개방적이었다(표 1 참고). 하지만, 개방성($F(1, 300)=7.23, p<.01$)과 순응성($F(1, 300)=4.96, p<.05$)에는 헤어 웨이브와 염색의 유의한 이원상호작용이 있었다. 한편, 어느 성격요인에서도 유의한 삼원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상자가 조사 당시 연출하고 있던 헤어 웨이브와 염색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두 성격 변인에 대해 웨이브 머리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어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헤어 염색의 여부에 따라 개방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1, 92)=11.75, p<.001$), 생머리를 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었다.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헤어 염색을 한 학생이 염색을 하지

표 1. 세 가지 헤어스타일별 5요인 성격과 BAS/BIS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격 변인	웨이브 머리				생머리			
	염색		비염색		염색		비염색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짧은 머리	정서적 안정성	16.20(2.66)	13.83(2.32)	14.61(3.40)	14.54(2.91)			
	외향성	18.70(3.20)	16.58(4.02)	17.55(3.54)	16.60(2.93)			
	개방성	18.00(4.11)	16.58(3.05)	17.65(4.22)	17.60(4.44)			
	순응성	18.50(3.37)	17.17(2.70)	17.03(3.02)	17.46(3.09)			
	성실성	10 15.90(4.10)	24 16.13(3.27)	31 15.00(3.76)	52 16.67(3.66)			
	보상민감성	16.50(2.59)	14.92(2.57)	15.61(2.69)	14.65(3.10)			
	추동	10.70(2.87)	11.04(1.76)	10.77(1.75)	10.11(2.60)			
	재미추구	11.50(2.51)	10.58(2.15)	11.23(2.22)	10.60(2.55)			
	행동억제	19.40(2.76)	20.00(3.83)	19.74(3.75)	19.02(3.53)			
긴머리	정서적 안정성	14.35(3.35)	13.12(2.85)	15.18(3.18)	14.93(3.23)			
	외향성	16.59(3.99)	16.14(3.78)	17.18(3.18)	16.68(3.27)			
	개방성	19.82(3.66)	15.77(4.43)	16.18(3.59)	16.72(3.75)			
	순응성	17.41(3.76)	16.44(2.96)	16.53(3.45)	17.58(2.78)			
	성실성	17 15.00(3.66)	43 16.77(3.64)	38 15.97(3.80)	93 16.28(4.03)			
	보상민감성	15.41(3.04)	15.56(2.31)	15.05(2.73)	14.69(2.76)			
	추동	10.77(2.41)	10.58(1.98)	10.79(2.45)	9.78(2.14)			
	재미추구	10.41(2.98)	10.07(2.22)	10.61(2.32)	10.20(2.36)			
	행동억제	20.18(4.14)	20.49(3.94)	18.71(3.46)	19.79(3.58)			

짧은 학생보다 개방성이 높았다. 순응성의 경우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헤어 염색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생머리를 하고 있는 집단에서도 경계적 유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F(1, 212)=3.18, p=.076$. 개방성과 순응성에 대한 헤어 웨이브와 염색의 이런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동활성화체계(BAS)와 행동억제체계(BIS)에

대해서도 2(헤어 길이: 짧은/긴) × 2(헤어 웨이브: 웨이브/생) × 2(헤어 염색: 염색/비염색) 삼원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헤어 길이에 따라서 BAS의 재미추구에 유의한 주효과 나타났다, $F(1, 300)=5.05, p<.05$. 짧은 머리의 여성이 긴 머리의 여성보다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헤어 웨이브나 염색 여부에 따라서는 BAS/BIS 어느 하위변인에서도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BAS/BIS 하위변

표 2. 세 가지 헤어스타일 형태에 따른 5요인 성격의 삼원변량분석 결과

성격 변인	변량원	SS	df	MS	F	Partial η^2
정서적 안정성	헤어길이(A)	15.47	1	15.47	1.82	.006
	헤어웨이브(B)	4.36	1	4.36	.51	.002
	헤어염색(C)	66.67	1	66.67	7.71**	.006
	A × B	27.49	1	27.49	3.23	.011
	A × C	.40	1	.40	.05	.000
	B × C	22.96	1	22.96	2.70	.009
	A × B × C	11.64	1	11.64	1.37	.005
외향성	헤어길이(A)	25.80	1	25.80	2.22	.007
	헤어웨이브(B)	.00	1	.00	.00	.000
	헤어염색(C)	51.86	1	51.86	4.46*	.015
	A × B	16.54	1	16.54	1.42	.005
	A × C	14.30	1	14.30	1.23	.004
	B × C	3.92	1	3.92	.34	.001
	A × B × C	4.79	1	4.79	.41	.001
개방성	헤어길이(A)	5.66	1	5.66	.36	.001
	헤어웨이브(B)	13.17	1	13.17	.84	.003
	헤어염색(C)	79.59	1	79.59	5.06*	.017
	A × B	35.81	1	35.81	2.28	.008
	A × C	13.51	1	13.51	.86	.003
	B × C	113.74	1	113.74	7.23**	.024
	A × B × C	33.30	1	33.30	2.11	.007
순응성	헤어길이(A)	15.50	1	15.50	1.67	.006
	헤어웨이브(B)	2.15	1	2.15	.23	.001
	헤어염색(C)	2.82	1	3.82	1.06	.002
	A × B	6.51	1	6.51	.70	.002
	A × C	3.13	1	3.13	.34	.001
	B × C	45.92	1	45.92	4.96*	.016
	A × B × C	.22	1	.22	.02	.000
성실성	헤어길이(A)	.33	1	.33	.02	.000
	헤어웨이브(B)	.06	1	.06	.01	.000
	헤어염색(C)	50.50	1	50.50	3.52	.012
	A × B	2.25	1	2.25	.16	.001
	A × C	.10	1	.10	.01	.000
	B × C	.00	1	.00	.00	.000
	A × B × C	27.11	1	27.11	1.89	.006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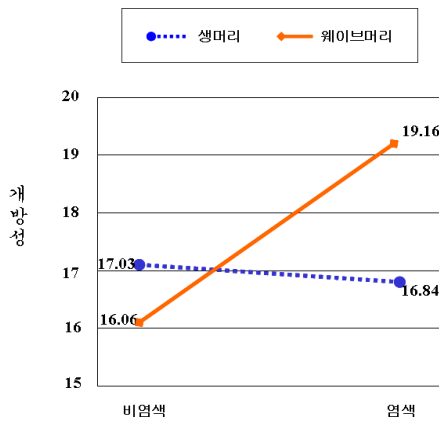


그림 1. 개방성에 대한 헤어 웨이브와 염색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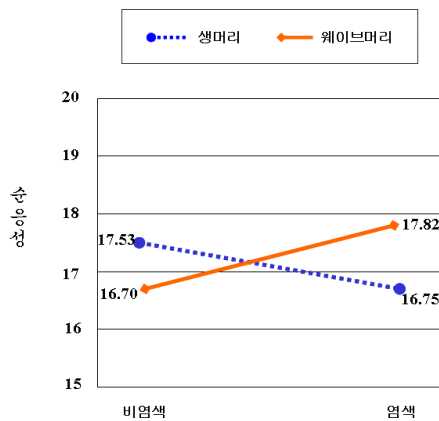


그림 2. 순응성에 대한 헤어 웨이브와 염색의 상호작용

인에서도 세 가지 헤어스타일의 어떤 상호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

성격과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

여대생의 성격과 헤어미용에 관한 태도 간의 관계를 검증한 상관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헤어상태 만족은 어떤 성격 요인과의 관계가 없었지만,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 중 다른 변인들은 몇몇의 성격 요인과 상관이 있었다.

헤어연출 곤란은 5요인 성격 중에 외향성($r=-.19, p<.001$)과 성실성($r=-.15, p<.01$), 그리고 BAS 중에 추동($r=-.12, p<.05$)과 부정 상관이 있었으며, 행동억제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r=.12, p<.05$). 그러나 자신의 헤어상태에 대한 만족은 5요인 성격은 물론 BAS 및 BIS와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사를 가리는 정도는 행동활성화체계의 하위변인인 보상민감성($r=.13, p<.01$), 추동($r=.23, p<.001$) 및 재미추구($r=.23, p<.001$)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미용실을 가리는 정도는 5요인 성격 중에 정서적 안정성이나 외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행동활성화 요인인 추동이나 재미추구와도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여대생들이 헤어용품을 선호하는 정도는 정서적 안정성($r=.22, p<.001$)이나 외향성($r=.25, p<.001$)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헤어용품의 선호는 BAS와 BIS 모든 하위변인과 상관이 있었다. 헤어용품 선호는 추동이나 재미추구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보상민감성이나 행동억제와는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헤어용품의 선호와 보상민감성이 추동이나 재미추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5요인 성격 중에는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이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와 주로 상관이 있었던 반면에, 행동활성화 요인 중에 추동과 재미추구가 미용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었다. 5요인 성격 중에 개방성과 순응성은 미용에 대한 태도의 어떤 하위변인과의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성격의 설명력을 확인하고 그 하위요인 중 어떤 것이 유

표 3. 세 가지 헤어스타일 형태에 따른 BAS/BIS의 삼원변량분석 결과

성격 변인	변량원	SS	df	MS	F	Partial η^2
보상 민감성	헤어길이(A)	3.03	1	3.03	.40	.001
	헤어웨이브(B)	18.12	1	18.12	2.40	.008
	헤어염색(C)	24.40	1	24.40	3.23	.011
	A × B	.02	1	.02	.01	.000
	A × C	17.30	1	17.30	2.29	.008
	B × C	.04	1	.04	.01	.000
	A × B × C	4.13	1	4.13	.55	.002
	추동	헤어길이(A)	1.62	1	1.62	.33
헤어웨이브(B)		8.44	1	8.44	1.71	.006
헤어염색(C)		7.25	1	7.25	1.47	.005
A × B		.02	1	.02	.01	.000
A × C		2.43	1	2.43	.49	.002
B × C		10.63	1	10.63	2.16	.007
A × B × C		.10	1	.10	.02	.000
재미추구		헤어길이(A)	21.98	1	21.98	3.89*
	헤어웨이브(B)	.01	1	.01	.00	.000
	헤어염색(C)	16.78	1	16.78	2.96	.010
	A × B	1.11	1	1.11	.20	.000
	A × C	2.07	1	2.07	.36	.001
	B × C	.17	1	.17	.03	.000
	A × B × C	.38	1	.38	.07	.000
	행동억제	헤어길이(A)	3.20	1	3.20	.24
헤어웨이브(B)		25.25	1	25.25	1.89	.006
헤어염색(C)		5.11	1	5.11	.38	.001
A × B		7.50	1	7.50	.56	.002
A × C		7.29	1	7.29	.55	.002
B × C		1.01	1	1.01	.08	.000
A × B × C		13.92	1	13.92	1.04	.003

* $p < .05$.

표 4.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와 성격 요인 간의 상관행렬(N=308)

변인	헤어연출 곤란	헤어상태 만족	미용사 가립	미용실 가립	헤어용품 선호	M(SD)
정서적 안정성	-.09	.01	.07	.13*	.22***	14.35(2.96)
외향성	-.19***	-.03	.08	.13*	.25***	16.79(3.41)
개방성	-.07	-.10	-.01	.03	-.11	16.96(4.04)
순응성	-.07	.02	-.05	.02	.07	17.21(3.05)
성실성	-.15**	.01	.08	-.03	.02	16.15(3.79)
보상민감성	-.11	.04	.13*	.06	-.14*	15.06(2.76)
추동	-.12*	.02	.23***	.18**	.24***	10.36(2.24)
재미추구	-.05	.01	.23***	.25***	.18**	10.49(2.39)
행동억제	.12*	-.08	.02	-.06	-.13**	19.64(3.66)
M(SD)	6.99(2.02)	4.30(1.54)	4.86(1.57)	3.94(1.80)	4.96(1.80)	

* $p < .05$, ** $p < .01$, *** $p < .001$.

표 5.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에 5요인 성격과 BAS/BIS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308)

예언변인	헤어연출 곤란		헤어상태 만족		미용사 가립		미용실 가립		헤어용품 선호	
	β	t	β	t	β	t	β	t	β	t
정서적 안정성	-.02	-.27	.02	.29	.03	.47	.09	1.36	.13*	2.10
외향성	-.18**	-2.60	-.05	-.66	.11	1.56	.10	1.39	.20**	3.00
개방성	-.10	-1.68	-.10	-1.74	.02	.27	.03	.44	-.12*	-2.17
순응성	.05	.72	.05	.75	-.12	-1.88	-.02	-.31	-.01	-.06
성실성	-.16**	-2.70	-.02	-.28	.11	1.75	-.03	-.42	-.03	-.50
R²	.062		.012		.026		.025		.091	
보상민감성	-.18*	-2.30	.13	1.62	-.05	-.70	-.11	-1.42	.01	.11
추동	-.06	-.80	-.03	-.38	.17*	2.23	.08	1.09	.20**	2.73
재미추구	.07	1.00	-.04	-.56	.15*	2.10	.26***	3.61	.05	.73
행동억제	.19**	3.00	-.13*	-2.05	.04	.60	-.03	-.46	-.14*	-2.28
R²	.045		.016		.066		.076		.078	

* $p < .05$, ** $p < .01$, *** $p < .001$.

의한 예언변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표 5 참고). 분석은 5요인 성격과 BAS/BIS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5요인 성격 중에 헤어연출 곤란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은 외향성($\beta = -.18, p < .01$)과 성실성($\beta = -.16, p < .01$)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6.2%로 높지 않았다. BAS/BIS 중에는 보상민감성($\beta = -.18, p < .01$)과 행동억제 성향($\beta = .19, p < .01$)이 헤어연출 곤란을 유의하게 예언하고 있었으며, BAS/BIS의 설명력은 4.5%로 5요인 성격보다도 적었다. 한편, 5요인 성격 중에는 헤어만족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없었으며, BAS/BIS 중에 행동억제가 헤어상태 만족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BAS/BIS의 설명력은 1.6%밖에 되지 않아 큰 의미가 없었다.

5요인 성격 중에는 여대생이 미용사를 가리는 정도를 유의하게 예언할 수 있는 변인이 없었으나, BAS/BIS 중에는 추동($\beta = .17, p < .05$)과 재미추구($\beta = .15, p < .05$)는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미용사를 가리는 정도에 대한 BAS/BIS의 그 설명력(6.6%)도 그리 크지는 않았다. 5요인 성격변인 중에는 미용실을 가리는 정도에 대한 유의한 예언 변인이 없었고, BAS/BIS 중에 재미추구만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beta = .26, p < .001$. 미용실을 가리는 정도의 변량을 BAS/BIS가 7.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헤어용품 선호는 5요인 성격 중에 정서적 안정성($\beta = .13, p < .05$), 외향성($\beta = .20, p < .01$) 및 개방성($\beta = -.12, p < .05$)이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나 외향성의 설명력이 가장 컸다. 5요인 성격으로는 여대생의 헤어용품 선호의 변량을 약 9.1%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BAS/BIS 중에는 추동($\beta = .20, p < .01$)과 행동억

제($\beta = -.14, p < .05$)가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BAS/BIS로는 여대생의 헤어용품 선호를 7.8% 정도 설명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성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에 앞서 조사 당시 연출된 헤어스타일에 따라 개인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송미라, 이재란, 2003; 오지영 등, 2006)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출된 헤어스타일은 성격과 큰 상관성이 없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여성에게 있어서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잦을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연출해 온 헤어스타일을 조사하지 않는 한 개인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또한 연출된 헤어스타일이 외부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및 미용사의 권유에 의해 연출된 헤어스타일이었을 수도 있다. 게다가 한국 여성 특유의 유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헤어스타일은 자기보고에 의한 것으로 짧은 머리와 긴 머리의 객관적 기준을 두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측정의 한계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에 성격이 반영되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나누었던 헤어스타일로 재검증한 것이지만, 추후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커트스타일이나 염색의 색깔 등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헤어스타일을 분류하여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실험연구가 아니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상관연구이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결론지을 수 없다. 그러나 미용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 성격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성격이 원인이 되는 인과의 방향을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격과 헤어스타일 혹은 헤어미용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성격이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출된 헤어스타일과 성격 간에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헤어염색은 5요인 성격과 상관이 있어 헤어를 염색한다는 것이 개인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의 설계가 달라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서윤경과 김주덕(2003)의 연구에서는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헤어 염색의 색깔에도 차이가 있었다. 헤어염색을 한 여대생이 그렇지 않은 여대생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외향적이고 개방적이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헤어염색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미용행위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개인의 외향성이 헤어염색에 반영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헤어염색을 한 여성들이 개방성이 강한 것은 헤어연출에서 있어서도 개방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여성이 헤어에 염색하는 경향이 21세기에 들어서는 더욱 화려해지고 있다고 하는데(황희순, 2002), 헤어염색에 여성의 이런 개인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음을 헤어염색 산업의 종사자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헤어염색에 대한 개방성과 순응성은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헤어산업에 종

사자들은 개방성이나 순응성에 대한 헤어염색과 헤어웨이브 여부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짧은 머리의 여성이 긴 머리의 여성보다 재미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긴 머리가 활동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 여성들은 재미있는 활동을 위해 짧은 머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자들이 가정한 것처럼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에 성격이 반영되어 있었다.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 척도가 행동적 요인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를 헤어와 관련된 미 추구 행동으로 가정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성격검사 별로 살펴보면, 5요인 성격 중에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이 미용에 대한 태도와 주로 상관이 있었으며, 행동활성화와 행동억제는 헤어상태에 만족을 제외한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의 여러 변인들과 상관이 있었다. 미용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5요인 성격에서는 내성적이고 성실성이 없을수록, BAS/BIS에서는 보상에 민감하지 못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도 헤어연출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내성적이거나 성실성이 떨어질수록 헤어연출에 곤란을 겪는다는 결과는 여성이 헤어연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헤어연출로 얻을 보상에 민감하고, 헤어연출을 함에 있어서 생길 수도 있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의해 행동을 억제하지 말아야 헤어연출에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방증한다. 회귀분석에서는 행동억제 성향이 헤어만족을 유의하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행동억제가 강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작은 비판

을 받아도 크게 마음이 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Carver & White, 1994), 상대방의 취향이 달라 자신의 헤어연출에 대해 평가가 그리 좋지 않은 것에도 쉽게 실망하여 자신의 헤어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행동활성화체계(BAS)의 재미추구와 추동은 미용사와 미용실을 선별하고 헤어용품의 선호 경향과도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재미추구는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으라는 기대에서 생기는 희망, 흥분, 행복감, 희열 등과 관계가 있다(김교현, 김원식, 2001). 따라서 헤어를 잘 연출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에 희망과 흥분의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미용실이나 미용사를 잘 고르려고 하고 헤어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용품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김정운(2007)도 재미의 추구를 소비문화적인 측면에서 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미와 추동은 어떤 행동에 지속하게 하거나 몰입하게 하는 내적 동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1975). 김성일(2007)은 재미의 개념에 즐거움, 기쁨, 만족감 등 정서적 속성 외에도 인지적 습성과 동기적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BAS에서 동기적 속성이 강한 것이 바로 추동이다. 추동은 바라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강한 욕망과 지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추구하려는 헤어미용 행위에 더 전념하여 지속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추동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에 더 관여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Depu, Krauss, & Spont, 1987). 심리적 멈춤 역할을 하는 행동억제체계(Carver & White, 1994)가 헤어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5요인 성격 중에는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이 헤어용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포함한 헤어미용의 태도와 관계가 있었다. 성격의 5요인 중에 외향성이나 신경증적 경향성 혹은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이 기질적인 면이 강하다(Lasky-Su, Faraone, Glatt, & Tsuang, 2005). 성격의 생리적 측면 혹은 기질적 기능을 연구한 선구자가 Eysenck(1967)인데, 그는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에 집중하였다. 그는 외향성은 각성수준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과 정서적 안정성은 정서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성격의 내적이고 기질적인 측면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데 반해 외적이고 도구적인 측면은 간접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McCrae & Costa, 1991).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헤어미용이나 헤어용품 산업체에서는 여성의 기질적 특성에 호소하는 광고 및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미 추구 행동에 성격이 반영된다는 것은 이 연구가 처음은 아니다. 박선희(2002) 연구에서는 MBTI로 측정된 성격의 유형에 따라 화장하는 이유와 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 추구 행동이 성격 중에 기질적 기능을 하는 요인과 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격의 기질적 부분과 여러 미 추구 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성격이 헤어미용이나 미 추구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논의하였다. 이제는 미 추구 행동을 하게 하는 외부의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의 외모에 대한 외부의 반응은 개인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면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매력적인 신체적 외모를 가졌을 경우 심지어 교사나 교수로부터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연구로도 입증되었다(Ritts, Patterson, & Tubbs, 1992). 그런 영향은 아동기부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Adams & Cohen, 1974),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기의 성격 형성이나 외모를 가꾸려는 행동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Zebrowitz, Collins와 Dutta(1998)는 얼굴의 인상으로 한 개인에 관해 판단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판단은 한 개인이 나이가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미소를 지을 것이며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개인에 대한 판단이 성격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매력적 외모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 기대와 같은 사회적 압력에 대한 반응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성격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외모와 관련된 선입견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일종의 자성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인 것이다.

각각 5요인 성격과 BAS/BIS는 미용에 대한 태도의 하위변인의 변량을 10%도 설명하지 못했지만, 여성의 미 추구행동이나 성격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가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특정 시기에 연출된 헤어스타일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과 같은 나라의 여성들보다 단일 민족으로서 한국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다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본적인 헤어스타일로 분석한 결과가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런 분석이 탐색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더 타당한 헤어스타일을 분류하고 측정하여 수행될 추후연구를 위한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가설검증이나 모형을 구축하는 추후 연구들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따라서 더 구체적인 학술적 문제제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제한점은 본 연구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서양과는 달리 한국의 여대생은 얼마 전까지 중·고등학교에서 헤어미용의 규제를 겪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성격이 헤어관리에 덜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미 추구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나 헤어미용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곽형심, 임인숙 (1999). 미용실무 전개를 위한 형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 23-38.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관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19-37.
- 김기향, 김기연 (1999). 미용학적 접근의 탈모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 109-122.
- 김봉인, 나지은 (1999).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고객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미용학회지*, 5, 401-410.
- 김성일 (2007). 재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2007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2-13.
- 김정은 (2007). 관점의 소비와 재미의 탄생.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4-15.
- 박선희 (2002). 여성의 화장 심리와 MBTI 심리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8, 61-70.
- 박은아 (2003). 화장의 심리사회적 의미: '보여주기'의 미학.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4, 105-127.
- 서경현, 정경숙 (2004). 미용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여성건강*, 5, 19-38.
- 서윤경, 김주덕 (2003). 여대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와의 관계. *한국미용학회지*, 9, 194-213.
- 오지영, 김금순, 김영선, 김영희, 김향선, 남주희, 남승숙 (2006). 대학생 헤어스타일과 성격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지*, 2, 181-192.
- 송미라, 이재란 (2003). 일부 미용 전공 학생의 헤어스타일과 성격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위생학회지*, 18, 75-86.
- 이주일 (2003). 성격과 개인차. 김현택 외 (공저), *현대 심리학의 이해*(pp.389-422). 서울: 학지사.
- 정경숙 (1999). 우리나라 현대미용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 317-339.
- 정경숙, 서경현 (2002). 미용에 대한 만족과 관심 및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8, 19-30.
- 정경숙, 서경현 (2003).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헤어 만족과 미용 관심의 역할: 미용실 이용객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9, 39-46.
- 최수경, 강경자 (2007). 여성의 화장행동이 화장후 심리적 기재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3, 155-162.
- 황희순 (2002). 미용학 개론. 서울: 청구문화사.
- Adams, G. R., & Cohen, A. S. (1974). Children's physical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student-teacher interaction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43, 1-5.
- Aizen, I. (2005).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Costa, P. T.,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Croese, R. G. (2002). A Woman's Aging Body: Friend or Foe? Trotman, Frances K. (Ed); Brody, Claire M. (Ed).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with Older Women: Cross-Cultural, Family, and End-of-Life Issues. Springer Series, Focus on Women.* (pp.17-40).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 Depu, R. A., Krauss, S. P., & Spont, M. R. (1987). A two-dimensional threshold model of seasonal bipolar affective disorder. In D. Magnusson & A. Ohman (Eds.), *Psychopathology: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pp.

- 95-123).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Eysenck, H. J. (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IL: Charles Thomas.
- Fowles, D. C. (1980). The three arousal model: Implications of Gray's two-factor learning theory for heart rate, electrodermal activity, and psychopathy. *Psychology*, 17, 87-104.
- Franzoi S. L., & Shields S. A. (1984). The Body Esteem Scal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d Sex Differences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173-178.
- Gray, J. A. (1990). Brain systems that mediate both emotion and cognition. *Cognition and Emotion*, 4, 269-288.
- Gray, J. A., & McNaughton, N. (2000). *The Neuropsychology of Anxie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oward, P. J., Medina, P. L., & Howard, J. M. (1996). The big five locator: A quick assessment tool for consultants and trainers. In J.W. Pfeiffer (Ed.), *The 1996 Annual: Vol. 1. Training*. San Diego, CA: Pfeiffer and Company.
- Kallgren, C. A., & Wood, W. (1986). Access to attitude-relevant information in memory as a determinant of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328-338.
- LaFrance, M. (2001). First Impressions and Hair Impressions. Unpublished manuscript. Yale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New Haven, Connecticut.
- Lasky-Su, J. A., Faraone, S. V., Glatt, S. J., & Tsuang, M. T. (2005). Meta-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two polymorphisms in the serotonin transporter gene and affective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Medical Genetics*, 133, 110-115.
- McCrae, R. R., & Costa, P. T. (1991). Adding Liebe und Arbeit: The full five factor model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227-232.
- Ritts, V., Patterson, M. L., & Tubbs, M. E. (1992). Expectations, impressions, and judgments of physically attractive students: A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 413-426.
- Wheeler, R. E., Davidson, R. J., & Tomarken, A. J. (1993). Frontal brain asymmetry and emotional reactivity: A biological substrate of affective style. *Psychophysiology*, 30, 82-89.
- Zebrowitz, L. A. (2004). The origins of first impressions. *Journal of Cultural and Evolutionary Psychology*, 2, 93-108.
- Zebrowitz, L. A., Andreoletti, C., Collins, M. A., Lee, S. Y., & Blumenthal, J. (1998). Bright, bad, babyfaced boys: Appearance stereotypes do not always yield self-fulfilling prophec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300-1320.
- Zebrowitz, L. A., Collins, M. A., & Dutta, R. (1998). Appearance and personality across the lifes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736-749.
- 1 차원고접수 : 2009. 9. 21.
심사통과접수 : 2009. 12. 10.
최종원고접수 : 2009. 12. 27.

Relationship between Women's Attitude of Hair Dressing and their Personality: An Explorative Study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Kyung-Suk Jeong

Sahmyook Health Colleg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attitude toward hairdressing and their personality such as Big 5 personality factors and BAS/BI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and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The participants were 308 female college students, whose ages ranged from 18 to 29 ($M=20.37$, $SD=2.02$).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15-item Attitude toward Hairdressing Scale, The Big Five Locator, and Korean Version of BAS/BIS Scale. Results revealed that women currently with short hair were more sought to fun than those with long hair, and women with hair dyeing were emotionally more stable and extrovert with opened mind than those without hair dyeing. But, overall participants' hair style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personality. Besides, 2-way interactions of wave and dyeing hairs in openness and agreeableness were found. Emotional stability and extroversion among Big 5 personality factors were related to the attitude toward hairdressing, and BAS/BIS were related to many sub-variables of the attitude toward hairdressing, except satisfaction of own hair condition. Certain personality factors were able to predict sub-variables of the attitude toward hairdressing, although their accountability were less than 10%. This study suggests especially dispositional personality trait were more closely related to women's attitude toward hairdressing. It was discussed with previous studies and some theories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 hair style, hair dressing, personality, behavioral activation, behavioral inhibition